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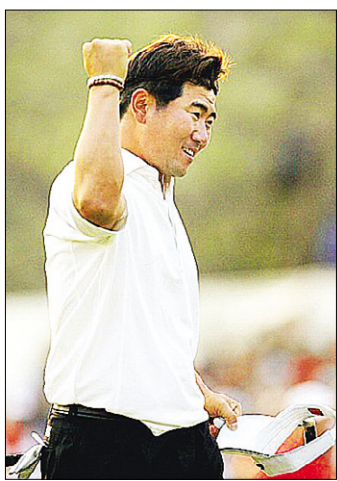


사람 메이저골프대회 우승 양용은 선수

평상심은 우승

“불교는 골프 경기에서 평상심(平常心)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된다.”

8월 17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꺾고 아시아 남자로서는 최초로 메이저골프대회(PGA 챔피언십)를 제패한 양용은(37·테일러메이저) 프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림 없이 이루어졌다고(如不動) 불교 수행에 있음을 밝혔다.



영주를 찬 오른 주먹을 번쩍 들며 우승을 자축하는 양용은. 사진=AP

전 세계의 골프 매니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무너뜨린 평정심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승부에 대한 집착이나 패배에 대한 두려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결여 등 일체의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경기에 몰입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갖춰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지인들의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분위기에 절대 휩쓸리지 않는다' '정신력이 무서운 만큼 강하다' '멘탈

'멘탈 골프의 일인자' 별명 생겨 구인사 신도인 부모님 원력 '큰 힘'

(Mental) 골프의 일인자'라는 별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평상심(平常心)'이란 마조 선사에 따르면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취사(取捨)가 없고, 단상(斷常)이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 없는 것'이다. 평상심은 중생심이 아니라 집착과 욕망, 불안과 같은 일체의 번뇌·망상이 없는 '무념(無念)'의 상태를 말한다.

양 프로가 무념의 상태에서 골프공 하나에 놀랄만한 성과를 일궈낸 것은 스스로의 마음공부의 결과로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간절한 원력과 신심이 큰 힘이 됐다는 후문이다.

아버지 양한준(64), 어머니 고희순(66)씨는 목실한 천태종 신도로서 부모는 틈날 때마다 총복 단양의 구인사를 찾아 불공을 드렸다. 2004년엔 부처님 전에 골프공 10박스(120개)를 올려놓고 불공을 드렸다. 아버지 양씨는 불공을 올리고 난 뒤 그 공을 아들에게 건넸고, 양 프로는 그 공을 가지고 대회에 출전했다. 부모의 정성 덕분인지 양 프로는 2004년 일본 투어에서 2등을 거뒀다. 2006년엔 유러피언 투어 HSBC챔피언스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를 물리치고 우승한다. 이번 PGA 챔피언십에서 우즈를 다시 한 번 꺾은 것도 그때 얻은 자신감이 큰 힘이 됐음은 물론이다.

한국 여성으로서 처음 메이저골프대회에서 우승한 박세리에 이어 양 프로가 다시 한 번 큰 성과를 이뤄내는 것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자들은 그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초월하는 향상일로(向上一路)의 정진으로 불심을 드러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불법으로 상생사회 이루자”

한국교수불자聯, 교수불자대회서 한반도 선진화 결의

“선진국이 건설을 위해 불교사상이 절실한 때, 부처님 정법으로 소통과 상생의 사회를 이루겠다.”

불자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선진화의 길을 모색하고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반도 선진화'와 관련한 결의문을 낭독하는 불자 교수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 상지영서대 교수)는 8월 17~19일 영월 법흥사에서 열린 2009 한국 교수불자대회 회향식에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불자교수들은 결의문에서 “한국 사회가 짧은 기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면서 “상생의 정지가 부재해 사회갈등이 만연된 것을 비롯해, 빈부의 양극화와 물질에 치중한 대중문화는 도덕성 붕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자교수들은 “한국사회가 선진화를 이루려면 불교사상이 절실하다”며 “연기(緣起)의 자각으로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실천하는 불교사상은 우리 사회의

모든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불자교수들은 부처님 정법을 실천해 △상하가 소통하는 선진사회 △중생이 공존하는 선진환경 △대중이 공유하는 문화적 전통을 창출·계승하겠다고 결의했다.

결의문 발표에 앞서 행사에 참가한 100여 불자교수들은 17일 서울대 박세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불교와 국가 선진화를 고민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5개 분과에서 불자교수들은 각자의 전공과 불교를 전차시키고, 다시 이를 공론화시켜 학제간 연

구의 물꼬를 댔다. 또, 매일 밤 108참회를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법흥사 주지 도안 스님은 회향식에서 “교수불자대회가 기간 중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봤다”며 “보살정신으로 내 가 더 한번 봉사하는 마음으

로 살자”고 강조했다.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2005년 대 <교육통계연감>에 불자라고 밝힌 전임교원이 5만여 명, 외래강사까지 합하면 10만 명에 이르나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은 1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인적자원의 누수와 공백을 메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 선행전공(학과장 조호) 교·강사 30여 명은 8월 14~15일 양주 육지장에서 워크숍을 열고,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교수법 등을 고민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東大 일산캠퍼스 건립 본격화

17일 의생명과학캠퍼스 착공식

동국대의 경기도 일산캠퍼스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동국대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착공식 중 시삽 장면.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8월 17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인근 부지에서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일산캠퍼스는 1만5060㎡(4550여 평) 규모로 201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과대와 한의대, 생명공학 관련 학과가 입주해 강의동과 BT(생명공학기술) 창업보육센터 등 산학협력관 등을 갖춘 예정이다. 일산캠퍼스와 함께 동국대가 고양시와 공동 추진 중인 고양메디컬러스터가 2020년 완공되면 일산캠퍼스는 17만㎡(5만1500여 평)의 대규모 연구혁신단지가 된다.

동국대 이사장 정면 스님은 치사에서 '일산캠퍼스 착공식을 계기로 동국대는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의

·생명과학의 거보를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오영교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국대에 약학대학 신설까지 결정되면 일산캠퍼스는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의·과학단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첨단 의료서비스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자대비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축하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 이사 정호 스님, 감사 상운 스님, 이명목 동국대 의료원장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장경사 폐사 위기

2경부로 노선 백지화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제작한 고려말기 대선사 경한(景閑) 스님이 창건한 장경사가 폐사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2경부고속도로의 용인시 원삼면 통과구간의 노선이 장경사를 관통해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장경사 주지 정휴 스님은 8월 18일 긴급회에서 “장경사를 경유하는 구간이 터널로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 바로 뒤 10m 떨어진 산등성에 다리를 놓는 방식으로 진행돼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장경사는 폐사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정휴 스님은 “노선에는 다른 주변 사찰과 가톨릭 미리내성지 등이 표기돼 있으나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안에 가장 인접해 있는 장경사는 누락돼 있어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선백지화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은 기자

노래 있는 연극 '아버지의 가수'

양지무리, 9월 19~23일 이해랑극장서



연극 '아버지의 가수'에 직접 출연한 극단 양지무리 남우성 대표(앞).

불교문화예술단체인 양지창 작문화원과 극단 양지무리(대표 남우성)는 2008년 창단 연극 '매혹'에 이어 두 번째 작품 '아버지의 가수'를 무대에 올린다.

최송림 작, 김성노 연출의 '아버지의 가수'는 9월 19~23일(매일 오후 4시, 7시 30분 공연)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남우성 대표를 비롯해 조수정, 박정순, 박현미, 김도형, 양말복 등이 출연하는 이 작품은 죽은 아내와 함께 즐겨 들었던 (가수 이미자의) 추억의 노래를 들으며 사는 아버지와 오페라 가수가 꿈인 딸의 애환을 서정적으로 그린

노래가 있는 연극이다. 아버지를 위해 오페라 가수를 포기하고 악극의 배우가 된 딸의 노래를 들으며 아버지가 운명을 맞이하는 마지막 장면은 관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극단 양지무리 남우성 대표는 “생자필멸(生者必滅)과 업이라는 화두를 대중가요로 포장해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이 어떻게 투영되고 갈무리되는지, 저마다 마음속에 번뇌의 삶을 들추어내 내 아내와 함께 즐겨 들었던 (가수 이미자의) 추억의 노래를 들으며 사는 아버지와 오페라 가수가 꿈인 딸의 애환을 서정적으로 그린

다. (02)306-2005, blog.daum.net/yangjimuri 김성우 기자

초월 스님 유품, 진관사에 기증

종손자 백외식씨 글씨와 그림 등 가져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초월 스님(1878~1951)의 유품이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에 일괄 기증됐다.



진관사로 돌아온 초월 스님의 글씨와 그림.

진관사는 최근 경내 홍제루에서 초월 스님의 종손자 백외식씨로부터 스님의 글씨와 그림 등 7점을 기증 받았다.

백씨가 기증한 유품은 초월 스님이 1920~30년대 후반 직접 쓴 글씨 4점과 사군자 그림 3점 등 모두 7점이다. 이 유품은 백씨가 부친인 백봉석씨와 전국 사찰의 초월 스님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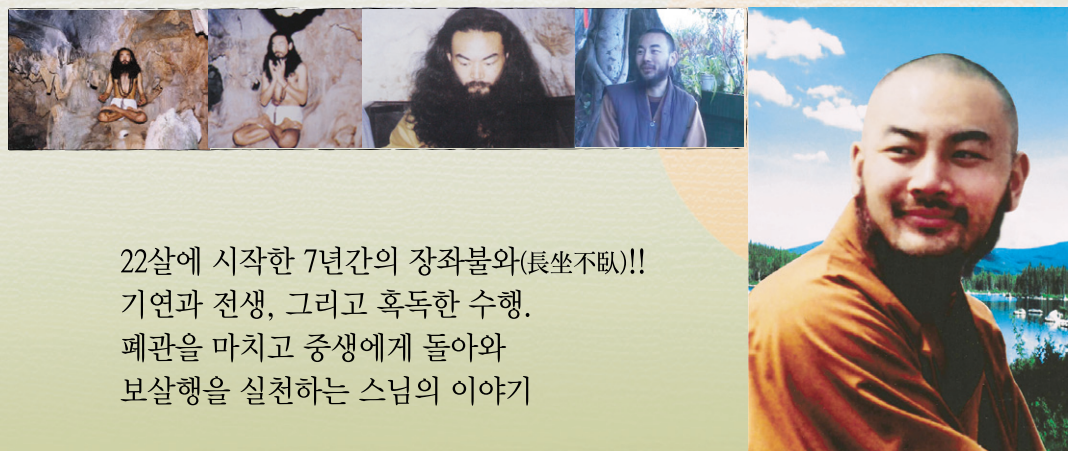
들로부터 기증 받은 것이다.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진관사 불사 과정에서 뜻밖 에 귀한 자료를 발견한데 이어 초월 스님 유품을 모두 기증받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후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진관사는 8월 11일 공개한 태극기 1점 등 독립운동 자료들과 이번 에 기증받은 초월 스님의 유품 등을 정리해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2009 대유학당 신간

마음의 달 1·2



22살에 시작한 7년간의 장좌불와(長坐不臥)!! 기연과 전생, 그리고 혹독한 수행. 폐관을 마치고 중생에게 돌아와 보살행을 실천하는 스님의 이야기



마음의 달(전2권), 만행스님 지음. 1권(연화생수련) 166쪽, 울칼라(연화생수련 CD포함). 2권(마음달는법) 334쪽, 각 1만원.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전시리즈

암송하거나 음미하실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포켓사이즈 경전. 각권 288~324페이지, 10000원

- ① 주역집
 - ② 주역인해
 - ③ 대학중용
 - ④ 경전주석인물사전
 - ⑤ 도덕경/ 음부경
 - ⑥ 논어
 - ⑦ 절기체조
 - ⑧ 맹자 1·2 (9월 출간예정)
- 선물용으로 권해 드립니다. 10권 이상 주문하시면 30% 할인됩니다.



계좌 국민은행 807-21-0290-497 예금주 농협 046-02-067645 윤상철 우체국 011809-02-202255 www.daeyou.net www.daeyou.or.kr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문가용 프로그램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면 명만이 작성되어 운명 풀이를 쉽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 ① 평생운 년운 월운 일운을 보는 전문가용 하라리수 400,000원
- ② 14점성과 보조성으로 김흥을 보는 전문가용 자미두수 400,000원
- ③ 720과의 단답형 가부길흥을 보는 전문가용 육임 100,000원



고전의 미래 대유학당 (02) 2249-5630~1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8 서신빌딩 402호